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 지역사회이론을 중심으로 -

The Community Theoretical Approach about Activation of Voluntary Action

고 수 현*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
| II. 이론적 검토 | 1. 지역사회형성의식의 강화 |
| 1.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 | 2. 자원봉사전달체계의 구축 |
| 2. 자원봉사활동 | 3. 자원봉사활동제정의 확충 |
| III.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 V. 맺음말 |
| 1. 자원봉사활동의 의식 | |
| 2. 자원봉사활동의 체계 | |
| 3. 자원봉사활동의 재정 | |

논문요약

1991년의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사회복지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정부의 커뮤니티 행정의 장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사회복지의 특성이 국가 전체적인 정체성이나 통일성에 기초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최근의 복지이데올로기는 복지다원주의 혹은 복지이원주의적 경향으로 이행되고 있다. 즉 국가와 지방정부 혹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복지수행체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 금강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교수

다. 이는 지방과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자율적 사회복지서비스 수행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자리를 구축해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이론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부적인 분석의 대상은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의식의 수렴과 강화문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전달체계문제,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재정확충문제 등이 된다.

I. 머리말

자원봉사의 철학은 헌신, 학습, 자유의지, 이타주의, 희생, 심리적 보상, 무보수성, 희생에 있다.¹⁾ 일찍이 엘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이후 제4의 물결시대에는 비정부기구를 비롯한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캐나다, 뉴질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연방국가들의 자원봉사 영역은 정부의 사회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행정개혁과 복지국가의 개혁이 자원봉사영역을 정부-제3섹트 파트너십의 중심영역으로 제도화시켜 놓았다.²⁾ 특히 영국에 있어서는 16세기에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된 이후 5세기가 지난 지금 자원봉사는 복지다원주의적인 대안으로 확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복지사회는 물질적 지원이나 행정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질 수 없으며, 정신적 기반으로서 주민의 자발적 공동참여가 복지적 필요를 충족시켜줄 때 건설되는 것이다.³⁾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Volunteerism)는 지역사회의 제 문제에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여 복지의 대상인 개인이나 가정의 기능을 회복 내지 보완하고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의 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집이라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에 이르러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제기된 지방분권화 정책에서는 행정도 종래의 전국적이고 제도적인 접근에서 진정으로 그 지역사회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 중심적 접근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커뮤니티 행정(Community Administration)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해당지역의 사회문제를 가장 핵심적으로 알고 있는 지역사회주민에게 주도적 역할을 부여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토록 하는 자

1) Ilsley, P.J., *Enhancing the Volunteer Experience*, San Francisco : Jossey-Bass Publishers, 1990, pp.7~12.

2) 주성수,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한양대출판부, 1999, pp.45~46.

3)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적십자와 자원봉사」, 1983, p.47.

원봉사이론은 지역사회복지의 접근방법으로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자원봉사는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자원봉사가 일반화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사회사업가나 사회복지기관에서나 일부 사용하는 정도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개최에 따른 자원봉사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사회의 관심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나 실천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자칫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에 장애가 될 요인마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봉사이론을 검토해 보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지역사회복지이념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부합되는 개선과제를 제시하여 지역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자원봉사가 민주·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전체적으로는 국가의 발전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게 되어 국가중심의 연구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거나 중심사무로 보는 사회복지의 커뮤니티론⁴⁾에 근거를 하여 지방정부가 지향해야 할 커뮤니티 행정과 연관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론적 배경에서도 지역사회의 이론과 지역사회복지이념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하여 전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각 부문별 문제점도 지역사회이론 등의 차원에서 도출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개선과제분석에서도 지역사회주민과 지방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정하였다.

연구의 전개과정은 먼저 자원봉사 개선과제제시에 기초가 되는 자원봉사의 개념 정립과 필요성, 지역사회와 자원봉사 양자간의 관계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에서의 기본적 문제들을 조망하여 자원봉사활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의 기반을 마련한 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의 활성화 방안을 사회복지의 커뮤니티론(community theory)에 기초를 두고 분야별로 논하였다.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정리하고 21세기의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기능적 이론 측면에서의 자원봉사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4) 사회복지분야의 대표적인 커뮤니티론의 하나는 영국의 새로운 지역복지서비스를 제안한 1968년의 Seebohm위원회의 커뮤니티론이다. 즉, 「커뮤니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권위와 자원성과 효과를 구성하는 기반」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시봄보고서(F. Seebohm Report)는 지방자치위원회와 관련 대인사회서비스(Committee Local Authority and Allied Personal Social Service)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기초하여 1970년 지방자치제 사회복지서비스법(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Act)이 제정되었다.

Ⅱ. 이론적 검토

1.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

1) 지역사회의 개념

자원봉사활동의 이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이해가 선행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커뮤니티의 개념을 사회학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학자는 미국의 사회학자 매킨버(Maclver Robert M.)로서 「인간이 일정한 지역에서 출생하여 지역사람들과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지역적 통일을 이루고 있는 사회」를 뜻한다.⁵⁾ R. M. Maclver 이후 지역사회(Community)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G. A. Hillery는 지역사회의 정의(Definition of Community)라는 논문에서 지역사회의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한 일치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나름대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공통점으로 들고 있다.⁶⁾ 즉, 공간단위로서의 지역사회(Area), 사회적 상호작용 단위로서의 지역사회(Social Interaction), 심리적 · 문화적 공통의 유대감(Common Tie)이 있는 지역사회이다. 여기에서 지역사회의 공통의 유대감은 Maclver가 말했듯이 ① 우리의식(We-feeling), ② 역할의식(Role-feeling), ③ 비 독립의식(Dependency-feeling)으로 표현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커뮤니티의 정의는 지역성(Area or Locality)과 공통의 유대감(Common Tie or Community Sentiment)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생활의 장에 있어서 자발적 시민의식에 의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의 바탕으로서 커뮤니티 이론은 발전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에서도 커뮤니티 형성과 육성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개발과 연계한 정책수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의 관계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역사회는 자원봉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지역사회의 개념규정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존재의의와 지역사회 주민의 개별적 복지의식을 지역사회화하는 형성과 맞물린 사회복지의

5) Robert M. Maclver, *Community : A Sociological Study*, London : Macmillan & Co., 1928, pp.22~23.

6) G. A. Hillery, "Definition of Community ;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Vol.20, 1955, p.119.

커뮤니티이론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는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는 장(field)이며, 자원을 제공하는 바탕이다. 특히 현대사회는 사업화·도시화됨에 따라 주민의 관심이 다양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관심의 내용과 성향에 따라 「동일성의 감정」을 갖게 된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인 개인과 가정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개발사업, 즉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식이 생성되게 하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자원봉사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적 원조의 대상인 개인과 가정은 어떤 커뮤니티에 소속하여 집단의 일원으로서 동일성의 감정과 밀접한 상호적 사회관계에 따라, 또한 집단성원의 일원으로서 공동적 활동에 참여하는 의식을 갖는 것에 따라,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경제적 사실에 따라 사회복지는 이 커뮤니티의 개발사업(Community Development)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⁷⁾

여기에서 지역사회복지의 방법론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데 주민들이 그들의 사회복지 욕구(Social Needs)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커뮤니티 의식의 정도에 따라 참여의 정도가 정해지기 마련이므로 동기부여나 유지가 가능한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방법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나 자원봉사의 근본적 방법에서는 주민 스스로의 자유의지가 기초가 되지만 지역의 형성이란 공간적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이 그들 스스로 욕구를 발견하고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의 육성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요청되는 분야이다.

2. 자원봉사활동

1)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복지국가로 일컬어지고 있는 선진제국에서의 사회복지의 흐름은 그간의 복지국가의 개념에서 복지사회로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것은 국가중심의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복지에서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다원주의적 이념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개념이기도 한다. 여기에서 자원봉사(Voluntarism)⁸⁾에 대한 개념규정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자체가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

7) 김영호, 「자원복지이론과 실제」, 홍익제, 1989, pp.56~57.

8) 자원봉사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1930년의 세계사회사업가대회였으나 'Volunteerism'과 'Voluntarism'이라는 용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volunteer)에 중심을 둔 'Volunteerism'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사활동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어 자칫 사회발전의 한 방법으로 전개되는 자원봉사의 개별행동에 야기 될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88아시아안계임과 '88올림픽, '93대전엑스포, 2002월드컵 등 대규모의 정부주도 행사를 준비하고 전개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행하여짐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해 역사화 전통이 깊지 못하였던 우리의 상황에서 새로운 장을 열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을 불러일으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적이나 국민정서적인 확고한 바탕이 없이 급작스레 계획하고 추진한데서 온 혼선도 많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학 사전 등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단지 김영호 교수는 「자원복지이론과 실제」라는 저서에서 “자원복지는 인간의 공동복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참여 노력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인데, 이것은 ① 인간상애(人間相愛)를 기반으로 하는 자발정신·자유의지(Voluntarism), ② 자원복지활동(Volunteer Activity), ③ 자원복지기관(Volunteer Organization)을 통합한 개념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⁹⁾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자원봉사를 ‘자원복지’라는 용어로 규정하여 보다 특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오사카(大阪)자원봉사자협회에서는 “자원봉사는 인류와 민족과 지역사회역사의 역사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존재해 왔으며, 각각의 문화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사회복지의 발전에 공헌해 왔다. 이는 주민의 위치에서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형식화되고 실행되어 가는 정신이었으며 퇴폐와 비복지적인 것에 대항하여 정화, 변혁해 온 정신이며 실천행동이다.”¹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자원봉사자를 자진해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이라고 광범위하게 보고 있다. 미국의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개인, 집단, 지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영향을 예방하고 혹은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공·사의 여러 조직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자원봉사는 욕구가 인식되었을 때 구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태도로 행동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시혜나 그 어떤 것을 바라거나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 영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자신이나 직접적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직접적인 보상이 없이, 그리고 구가나 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²⁾ 그리고 맥그리거 등(McGregor)은 자원봉사자는 금전적

9) 상계서, p.16.

10) 大阪ボランティア協會「ボランティア参加する福祉」,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1993, p.27.

11) Dunn, P.C., "Volunteer Management", NASW, *Encyclopedia of Social Work(19th Ed.)*, Washington D.C. : NASW Press, 1995, p. 2483.

인 보상이 없이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사례금 등의 최소 비용을 받고 타인에게 서비스, 기술, 시간, 경험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¹³⁾ 한국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 활동이란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公私)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⁴⁾

이상의 제 정의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자원봉사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단체가 자발적 의지에 의하여 지역사회, 국가, 세계국가를 막론하여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감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물론 그 서비스 활동에는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이나 수당 지급의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자발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은 자원봉사활동(Voluntary Actio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원봉사(Voluntarism)는 앞에서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몇 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할 수 있다. 첫째는 그 방법에는 있어 주민의 공동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는 주민의 주체가 된 공동의식의 발로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공동적 참여가 없다면 공동사회의 발전과 유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주민의 자발적, 사적 의지를 공익(Common Good)증진에 결집하는 과정이다. 당초 “볼룬타리(Voluntary)”라고 하는 것은 무보수(Un-paid)를 의미하였던 바와 같이 외부의 강압적인 제재가 아닌 선의의 개인적 복지성향을 사회공익적으로 옮겨가는 실천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셋째는 볼룬티어정신과 볼룬티어활동의 합성어이다. 이는 이웃, 민족, 나아가서 전 인류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다는 복지정신과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반적인 활동(Voluntary Action)이다. 즉 자신의 의지나 선택에 의한(out of one's own will and choice)행위를 의미한다. 넷째는 이상의 개인적인 자유의지와 활동을 조직화해주는 일련의 자발적 민간조직(Voluntary Organization), 즉 자원봉사활동의 동기와 실천을 육성해 주는 기관과 민간협회(Voluntary Association)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⁵⁾

12) Sheard, J., "From Lady Bountiful to Active Citizen." Justin Davice Smith, Colin Rochester & Rodney Hedley, *An Introduction to the Voluntary Sector*, London : Routledge, 1995, p.115.

13) McGregor, M. S. James, J. Gerrand & D. Catter. *For Love Not Money*, Victoria : Dove Communication, 1982. p.1.

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의 이론과 실제」, 1978.

15) 고수현 외, 「지역사회복지론」, 대학출판사, 2003, p. 266.

2) 자원봉사활동의 필요성

현대사회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사회문제를 안고 물적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60년대 이후 약 30년간에 걸친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으로 물질만능주의, 지나친 경쟁주의, 편법주의가 사회전반에 흐르게 되어 참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회건설, 즉 복지사회 건설에는 등한시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의 기본단위인 가정이 핵가족 중심으로 분산되고, 지역사회 자체가 유지해 오고 있던 도덕, 윤리의식이 미미해지는가 하면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장애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만 양산해 놓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원봉사는 이러한 사회문제의 예방과 치유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지대상인 개인에서부터 지역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미치는 몇 가지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공공 사회복지의 한계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민간차원의 복지활동 분야를 확대해 주어 본래의 가족기능이나 지역사회 기능을 강화해 준다는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적·제도적 접근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복지대상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으며, 주민상호간의 자발적 참여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에서 얻지 못하는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이것은 국가의 복지예산의 한계성의 보완 차원에서라도 효용성과도 연계된다.

둘째, 지역사회 의식형성에 기여한다. 산업화, 도시화는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교통, 통신, 정보의 발달로 전통사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공동체의식과 지역정서(Local Sentiment)는 해체되어 점점 개인화됨에 따라, 군중 속에서 생활하지만 혼자뿐이라는 삭막한 감성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지역사회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현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인간은 “근린적 상호교류”를 필요로 하게 되고, 여기에서 지역사회 의식이 산출될 수 있다. 이것은 아무리 공식조직이 많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비공식조직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원거리의 공식조직에서 구하지 못하는 인간성 회복이나 휴식공간은 근린지역에서 찾게 된다는 논리와 통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의식적 발로를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이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은 그 대상에 있어서 근린지역을 원칙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나 그 인근지역에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이 유리하고 친밀감도 있어서 효과적임은 사실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지방자치시대를 전개하고 있고, 지방자치는 해당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된 사회를 모색하는 데 근본 목

적이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의식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시대적으로도 요청되는 지역사회복지 운동이다.

셋째, 전문적인 사회복지사업의 기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 사회사업의 특징은 전문화인데, 사회복지사업의 전체가 전문직원에 의해 수행된다고는 볼 수 없다. 특히 지역복지 분야처럼 문제의 소재가 해당지역의 특수성을 갖게 된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이 때 자원봉사요원은 필수조건이 된다. 단지 사회복지전문직은 이들을 조직화하고 지원해 주는, 그야말로 슈퍼바이저(Supervisor)역할에 치중하여야 하는 만큼, 자원봉사는 사회복지 전체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분야이다.¹⁶⁾

넷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관점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복지의 이념이 생존권 보호라는 국민의 기본권 확보에 있음은 오늘날의 일반적인 인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 대상을 사회·경제적 약자에 두고 있다. 즉 빈곤(Destitution), 질병(Disease), 비행(Delinquency)으로 정상적인 일상수준에서 낙오된 장애인이나 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등만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의 대상이 전 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은 사회복지의 대상과는 거리가 먼 상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지 못하며, 참여하더라도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다섯째, 그간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서 대두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지금까지의 보충적인 개념, 즉 빈곤정책에서 더 나아가 보편적인 인간성 회복에 이르는 개념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의 주민도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문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지역사회복지적 방법이 될 수 있다.

Ⅲ.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문제

사회복지란 인간이 사회 속에서 잘 사는 것(Well-Being)을 뜻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인간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지역사회복지, 그 중에서도 자원봉사에 관심을 가

16) 김영호, 「한국에 있어서의 Volunteer 활동의 육성과 조직화 과정」 강남사회복지대학 논문집, 1980, pp.173~174.

지고 사회적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현재 우리나라 상황의 지역사회 내에서 자원봉사를 실천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자원봉사활동의식

지역사회주민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보호(Community Care)하고자 하는 지역사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구성원인 개인의 마음속에 “자원의식(自願意識)”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이 미미한 국가에서는 올바른 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기본과제가 아닐 수 없다. 즉 지역사회주민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의 철학을 인식시키는 작업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원봉사활동은 인간성의 상실과 가정 및 사회의 해체에서 오는 문제를 공동사회의 개별적 자유의지 혹은 자발정신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 활동이며, 이것의 기반철학은 인간존중과 상부상조 정신에 있다.¹⁷⁾

인간존중과 상부상조의 정신은 우리나라에도 단군신화에서부터 「홍익인간」과 삼한시대의 「계(契)」, 신라시대의 주민협동과 원조를 목적으로 했던 「두레」, 「품앗이」, 마을 내에 중병자나 불구자, 과부 그리고 초상을 당한 집의 농사를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지어주는 「공굴」,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노력 봉사하는 「향도」 등의 전통을 찾아볼 수 있다. 지금도 관혼상제 등의 큰일을 치를 때 금품으로 하는 부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홀아비나 노인 가구. 비농가에게는 가을에 지붕을 이을 때 짚단을 제공해 주고 재해 발생시에는 물자와 노력봉사를 해주는 자원봉사의 전통은 최근까지도 농촌사회에 이어져 왔다. 이는 한국적인 자원봉사의식의 뿌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구미의 Voluntarism을 그대로 도입하여 인위적인 이식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있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국민의식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2. 자원봉사활동체계

1) 자원봉사활동조직

17) 竹内愛二・高森敬久 共著 「コミュニティ・デベロプメント」, ミネルヴァ 書房, 1970, p.177.

자원봉사의 조직은 자원봉사의식을 집결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회계획(Social Planing)의 주체이다. 물론 개별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는 개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지만 이를 지역사회의 자발적 자원을 한데 모아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공식적 자원체계(Formal Resource System)의 구축이 기본적 과제로 등장한다.¹⁸⁾ 이것은 자원봉사활동 자체가 봉사자 개개인의 자의성(Willfulness)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 활동자체도 봉사자의 개별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에서 나오되었거나 예상되는 나오계층을 평범한 지역사회생활이 가능토록 도와주는데 있으므로 막연한 자선적 시혜로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수많은 자원봉사 의지를 가진 개개인의 의지(Willness)를 조정하고 연마하여 바람직한 실천(Social Work Practice)으로 표출하기 위한 체계 마련은 자원봉사를 하는 당사자, 즉 봉사자와 클라이언트(Client) 상호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전단계인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봉사자의 경우는 시행착오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일회성 행위에 그칠 확률이 높으며, 자원봉사의 대상자(Client)의 입장에서는 봉사자 개인에 대한 기대심리나 이타심이 지나치게 증가될 우려가 있어 결국 온전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지 못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혹은 지역사회보호위원회(Community Care Committee) 등의 자원봉사조직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2) 자원봉사활동과정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식을 지역사회내의 공식조직에 결지하여 계획화한 후 실제 현장에 옮기는 단계가 실제 현장에 옮기는 단계가 활동과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자원복지 본래의 목적달성의 전단계로서의 중요성을 가진다. 이 단계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 계획했던 활동의 내용과 다른 측면의 사회복지욕구(Social Needs)를 발견할 수 있고, 즉각적인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어렵거나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사유로 사회복지전문직의 개입, 즉 자원봉사관리자 혹은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이 요청된다.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조정자가 배치되어야 할 곳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인데,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병원, 자원봉사자 집단 내, 학교, 지역사회에도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다.¹⁹⁾ 코디네이터는 원칙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봉사자에는 속하지 않는다. 단지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접하

18) 공식적 자원체계의 상세한 논의는 Allen Pincus & Anne Minahan의 *Social Work Practice : Model & Method*, F.E. Peacock Publishers, Inc., 1973. pp.4~5참조.

19) 「コーディネーターの機能と役割に関する試案—コーディネーター問題専門委員会報告書」, 全国ボランティア活動振興センター, 1978. p.18.

게 되는 개별문제를 상담해주고 촉진해 주는 역할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개입이 지나칠 경우 자원봉사자의 의지를 손상할 여지가 없지 않으며, 복지대상자에게도 신뢰감을 주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유념해야 할 것은 봉사활동의 목적이 복지대상자를 위한(Social work for clients) 개념, 즉 시혜적 개념보다는 그들과 함께 한다는(Social work with clients)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오늘날 사회복지 방법론의 전반적인 추세이며 과제이기도 하다.

3. 자원봉사활동재정

오늘날의 산업사회는 경제적 성공, 즉 자본 축적에 가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자는 그 자본을 분배하고 쓰는데 관심이 있다.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는 무제인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원봉사는 국가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적 복지, 즉 공공부조 사업과는 달리 지역사회 내의 자발적인 주민의지를 기반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국가의 추세는 사회복지를 산업사회에서 발생한 제반 사회문제를 환류하고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주체를 국가자체로 인식하고 있어 스스로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산업사회의 경제성장 목적이나 사회복지의 치유적 목적은 상호 보완적 위치에서 맞물리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 원리는 복지사회의 기본 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대상자가 현저히 낙오된 상태로 처한 이유는 개인적 방탕이나 무능력의 원인도 있지만, 국가나 지역사회가 지나친 경쟁, 편법주의 등의 무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임론에 근거하면, 당연히 그 해결을 시도하는 자원봉사도 비용의 부담을 지역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이론에 접하게 된다. 단지 자원봉사의 원리가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와 무보수, 이타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적으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 공동기금 등의 축적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나 주부층이고 비경제인구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지원할 기본적인 비용을 당연히 공적부문에서 확충되어야 할 과제이다.²⁰⁾

20) 자원봉사의 특성이 무보수성(un-paid)에 기초함에도 자원봉사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현지교통비나 식비 등은 보수보다는 '수당'에 가까우며, 필요한 경우 유급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

IV.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앞에서 서술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개별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 나타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인본적 사회기풍을 진작시킴으로써 민주복지사회 건설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자원봉사에 대한 합의(Consensus)를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지역사회문제해결의 방안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각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연구의 바탕이 자원봉사의 커뮤니티적 접근에 있으므로 “커뮤니티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익자임과 제공자이기도 한 실천적 근거로서,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 집단, 기관이 갖는 사회관계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에의 지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커뮤니티이론에 기초하여 각각 분야별로 우리 실정에 부합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지역사회형성의식의 강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형성의식은 자원봉사를 강화하는 기틀이 된다. 커뮤니티 의식이 우선해야 자원봉사의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커뮤니티 의식이 우선해야 자원봉사의식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커뮤니티 형성의식이 자원봉사의식의 생성과는 직접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의 공간적 의식이 없는 자원봉사활동은 본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붕괴, 분해, 쇠퇴, 불안정, 파손, 정서불안의 상태로 가고 있다는²¹⁾ 말에서 인식할 수 있듯이 사회복지에 이러한 진전의 상태를 둔화시키고 치유,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론인 만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터전 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의식형성의 강화는 자원봉사에 있어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할 단계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형성의식은 그 순서에 있어 자원봉사활동보다도 앞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면서 커뮤니티 형성의식이 강화될 수도 있는 까닭이다.

다만 자원봉사부문에서도 재정확충의 중요성이 있다.

21) R. A. Nisbet, *The Quest For Commun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7.

커뮤니티 형성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주민 상호간의 친밀감, 즉 공동체 의식에 있다는 시점에서 보면 자원봉사가 지역사회 내의 문제요소를 주민스스로 해결코자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고 있어 복지문제도 지역복지차원의 접근방법이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사회 형성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강화해야 할 부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에는 확실히 지역사회 주민 중에서 자원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는 지역 내에 그 자원이 없을 경우 인접 사회의 협의회간에 상호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커뮤니티 감정이 있는 봉사자로 하여금 서비스 활동을 전개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2. 자원봉사전달체계의 구축

1) 자원봉사활동조직의 강화

최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개별연구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2%정도에 불과하다.²²⁾ 그러나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외국의 경우 전체인구의 10~50%정도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준이며, 그것도 새마을지도자 조직이나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국민운동지원 조직을 제외하면 참여비율이 더욱 낮아진다.²³⁾ 이것은 앞에서 자원봉사의 과제로서 조직의 중요성을 서술하였지만, 개인의 산발적인 자원봉사의식을 공식적으로 조직화하고 계획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다는 것과 연관된다.

정부에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봉사자에 대한 각종 우대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직접적인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의지를 집결할 수 있는 조직화 기능의 미비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조직을 인간 개개인의 집단(Group)으로 보고 조직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우리들 의식(We-feeling)'이 있어 공통의 목표의식이 생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자원봉사와 연관하여 설명하면 자원봉사가 원래 개인의 자유의지, 즉 자원의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만큼 각양각색의 형태이며, 세련되지

22) 2000년 7월 26일에 통계청이 발표한 "1999년 국민생활시간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은 사회봉사에 하루 6분 정도를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우리나라의 자원봉사단체나 조직을 보면 지역복지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이 있다.

못한 상태로 개별 클라이언트에게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자원봉사자야 복지대상자간에 괴리현상을 빚을 개연성이 많으며, 이것은 곧 복지활동의 중단이라는 중지부를 찍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이들 개별의지를 좀더 세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센터 등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한다고 가정하면 중도포기라는 최악의 상태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 봉사활동에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가 홍보요원이 되어 새로운 자원봉사요원을 확보하고 확산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아진다.

2) 자원봉사접근모델의 구축

돌이켜 보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제까지의 자원봉사활동은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 등 국가 주요행사를 제외하고는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나 특별한 지원이 없이 각종의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종교단체 등 기타 다양한 조직체에서 그들의 필요와 의지에 따라 개별적, 자율적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정부차원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자원봉사는 접근모델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혹은 개인의 지역사회복지사업은 당연히 자기기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봉사자 모집과 육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원봉사 본래의 기능, 즉 지역사회와 개별 요보호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모델의 개발과는 동떨어져 온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개별집단의 필요적 자원봉사원의 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지속되어온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사회복지에 대한 자원복지 프로그램은 다소 발전되어 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복지관은 사회복지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Community Care)하는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기에, 가정봉사활동과 재가복지, 상담 자원봉사 활동, 레크리에이션 분야 등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의 구축이 미약한 부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각종 복지관별로 행해지고 있는 민간기관 중심의 자원봉사활동모델과 병행하여 지역사회내의 자원봉사활동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천적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3) 자원봉사기관 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의 소양교육이나 전문교육이 모집기관별로 비전문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참여 당시의 의욕에 비하여 실제 현장 활동(Field-work)에 나가서는 자원봉사 의식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부족하여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50%정도가 중도에 봉사활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등의 조사결과이다. 이것은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자기 단체를 위해 민간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활용하거나 특수목적의 단체가 그 목적에 맞추어 직접 양성·배치해왔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양성기능과 활용 등의 관리기능이 전문화·체계화되지 못하였다는데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없이는 자원봉사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대상별로 프로그램 개발하고 교육시키며, 현장에 배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자원봉사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해 나가는 세부적 대안이 요구된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각종 교육기능의 전문화가 요청되고 이들을 조정할 슈퍼바이저(사회복지사)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자 양성과 활용, 체제와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전국적 체제를 갖춘 자원봉사기관을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립하고 각종 분야별 기능을 통합 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존 사회복지협회나 각종 봉사센터 기능을 연계하거나 조정하는 방안도 강구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원이 어떤 조직이나 장소에서 활동하더라도 지역사회 감정을 유지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계체제를 구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3. 자원봉사활동재정의 확충

자원봉사의 과제로서 자원봉사 비용의 부담 중 기본적인 운영비용은 정부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으나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의 교육비나 기본적인 활동비 이외에도 자원봉사 관리를 위한 예산이 소요될 부문이 많은 분야이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사회복지의 기능과 역할은 점증되고 있지만 사회복지 관련법령에 나타나는 국가 재정지원은 불충분한 상태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복지관련 법령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 인건비의 10%, 시설 관리운영비의 20%를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시에 연간 운영경비의 20%이상을 자체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자원의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정부예산 지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사회에 있어 자원봉사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기틀이 앞에서 제시한 지역사회 의식형성, 자원복지조직의 강화, 자원복지모델의 구축, 전문자원

복지기관 육성이라고 본다면 자원복지기금 조성과 운영의 문제는 이들 각 분야가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부문이다.

사회복지분야의 민간재원 조달방법으로는 기금 마련을 국가중심의 적십자회비, 재해의연금, 중앙차원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 활동 등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 재원조달의 문제점으로 국가에 의한 사회복지자금 지원의 불충분과 모금 및 배분의 효율성 부족,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 모금활동의 전문성 부족, 사용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 모금활동의 전문성 부족, 사용결과에 대한 홍보 부족, 세계상의 유인제도 미흡을 제시할 수 있으나,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공동모금제도 (Community Chests)를 활성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금활동 전개로 지역사회 스스로가 자발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이제 지금까지 논의된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을 요약·정리한 후 기능적 이론 측면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우선 지역사회의 자원봉사활동상의 문제점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를 전개하기 위한 초기단계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보호의식, 즉 자원봉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주민 전반에 걸쳐 자원봉사철학을 인식시키는 것이 기본적 과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미식의 자원봉사(Volunteerism) 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전통인 품앗이, 두레, 계, 공굴, 부조 등의 한국적 자원봉사의 뿌리의식을 계승, 발전하는 차원의 주민의식 조성이 요구된다. 지역사회내의 주민이 스스로 커뮤니티 만들기 작업, 즉 지역사회 의식의 형성이 있어야 자원봉사 본래 목적 달성의 기반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사회내의 자발적 봉사활동을 한 곳에 집결하고 조정, 연마하여 바람직한 복지실천(Social work-practice)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조직, 즉 자원봉사조직 마련이 과제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산발적인 개별 자원의지를 집단화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직화 과정에서 우리의식(We-feeling)이 발현되고 홍보요원 화됨으로써 새로운 자원봉사요원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 과정상에 제기될 수 있는 봉사자와 클라이언트 상호간의 괴리현상으로 중도 탈락되는 자원봉사의 방지대책으로 사회복지전문가의 조정자로서의 개입하는 모델이 요청된다. 현재 자

원봉사 접근모델은 재가복지봉사센터 등 다원화되어 있으나 활동은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의 복지사회는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복지 역할에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원봉사요원을 양성하고 배치, 운영할 수 있는 전문자원복지기관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에 위치한 대학의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셋째 자원봉사는 봉사자 개개인의 자유의지(willness)에 기초하므로 재정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비 등의 기본적 비용은 사회복지의 국가적 책임론에 비추어 정부부담으로 충당되어야 할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민간재원 조달방법인 적십자회비, 재해의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의 방법 이외에도 개인이나 기업이 자원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기부문화의 개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성화방안에 기초하여 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voluntary activity)을 사회복지영역으로 포함시키는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행정자치부 산하 지원조직으로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이러한 조직이 없다. 물론 자원봉사활동의 대상이 사회복지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서구국가의 사례에 견주어 볼 때 자원봉사 영역은 사회복지영역에서 관리되고 육성되는 것이 이념적으로도 타당할 것이다. 즉 '자원복지'로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둘째,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사회복지부문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 1999년에 서울에서 세계 NGO대회가 개최된 후 일반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NGO들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부문의 역할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이들 비정부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이 투입될 필요성이 있고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내부 NGO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봉사의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근 비영리민간기구(Non Profit Organization)나 시민공익단체가 자원봉사단체를 교육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NPO는 엄밀하게 말하면 조직 운영에 따른 예산이 필요한 조직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사회민주연대, 흥사단 등과 복지단체들이 대표적인 조직이나 그야말로 비조직적이고 산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국가복지활동의 파트너로서 제3섹터(민간의 자발적 영역)나 자원봉사섹터(voluntary sector)로 활용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이 국가중심의 사회복지정책과 아우러질 때 21세기의

복지사회는 세계 공동체 내지는 국가공동체, 지역사회공동체로서 미래를 향한 발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